



## 9월 제조업 경기 위축세 지속, 비제조업 경기 악화 우려 증폭

이소양 연구원

■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49.8로 전월대비 0.6%p 반등하였으나 시장 예측치(50.2)보다 낮은 수준

- 생산 지수는 0.4%p 상승한 51.3을 기록하였으나 신규 주문 지수, 신규 수출 주문 지수 및 수입 지수는 각각 1.1%p, 2.2%p, 0.7%p 증가한 49.8, 48.8, 47.7로 여전히 임계점 50을 하회
-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번 제조업 PMI 반등의 원인이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4/4분기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.
- 반면,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금번 제조업 PMI 반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조업 경기가 4/4분기에 확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.
- 또한, HSBC가 발표한 9월 민간 제조업 PMI는 공식적 수치보다 더 낮은 47.9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임계점인 50 수준을 11개월 연속 밑돌고 있음.
  - HSBC가 발표한 민간 제조업 PMI는 2011년 11월부터 임계점인 50을 하회하였으며 지난 8월에 2009년 3월 이래 최저치인 47.6을 기록함.

■ 한편, 9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대비 2.6%p 하락해 지난 3월 이래 최저치인 53.7을 기록, 비제조업 경기 악화 우려감을 확대시키고 있음.

-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0.2%p 상승한 49.8로 임계치 50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신규 주문 지수(51.8), 취업 지수(51.0) 및 경영 활동 전망 지수(60.9)는 각각 0.9%p, 0.7%p, 2.3%p 하락함.
- 전문가들은 금번 비제조업 PMI는 50수준을 웃돌고 있으나 제조업 PMI의 하락 추세와 같이 임계점인 50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.
- 또한, 정부가 인프라투자 및 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, 부동산 통제정책으로 경기부양책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.

(WSJ, Reuters, 10/1, 10/3 등)